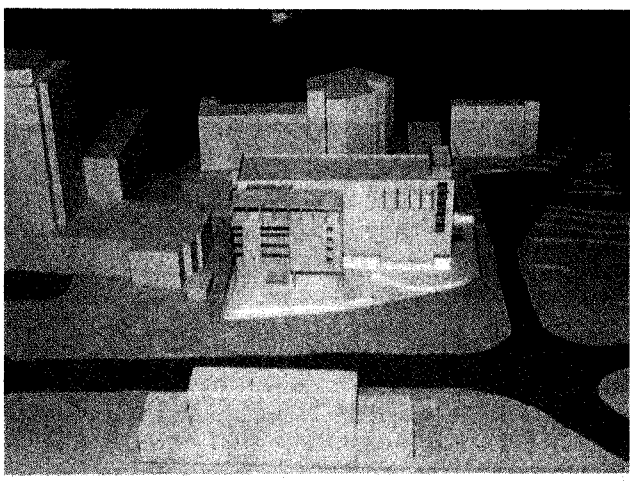




▲건설예정중인 종합강의동 예상 모형

종합강의동 건설계획 발표

지상 7층, 지하 3층 6천여평 규모

건설부는 건설 계획중에 있는 서울캠퍼스 종합강의동의 예상모형을 공개했다. 지상 7층과 지하 3층의 약 6천여평 규모로 경희의료원과 경희호텔 전문대학의 사이(현 골포장)에 자리하게 될 이 종합강의동 공사는 4차에 걸친 계획의 결과로 모

형을 확정, 제작한 상태이다. 우리학교 총학생회와 경희호전 총학생회 간의 논의 끝에 종합강의동의 공동 사용을 결정한 후 현재는 도면화 작업을 위한 강의동 내부구조를 계획 중이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용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총학생회장 박정윤군

지지율 58.4%...치·약대 압도적 우세

(각 후보별 득표 현황)

구분	정경대	의대	치·약대	가정대	음대	한의대	체대	사범대	문리대	총합
득표수	480	184	140	463	181	175	115	200	124	2,748
득표율(%)	47.1	51.5	35.4	80.5	66.3	71.4	51.3	64.3	70.1	59.8
지지율(%)	540	173	255	112	92	70	109	111	53	1,847
지지율(%)	52.9	48.5	64.6	19.5	33.7	28.6	48.7	35.7	29.9	40.2
투표율(%)	47.7	61.0	50.2	92.8	62.3	52.2	33.3	68.9	56.6	54.4

총유권자수=8,647명 총투표자수=4,706명 총유효표수=4,595표

박정윤(생물93) 김정필(경제93)후보가 각각 29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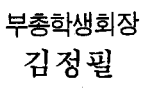
박-김 후보는 지난 30일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새벽 3시부터 실시한 개표에서 전체 투표자 4천7백6명 중 2천7백48명의 지지를 받아 58.39%의 지지율을 보여 1천8백47표를 얻은 송지욱(경외91), 허경태(물리90)후보(39.24%의 지지

율)와는 9백1표의 차이를 뒀다. 이날 박-김 후보측은 정경대를 제외한 모든 단대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특히 약, 치과대학에서는 전체투표자 5백90명 중 4백63명의 지지를 받았다(무효13 오차2). 박정윤군은 당선에 확정되자 “간헐 내 삶의 장을 열어 민중의 하늘에서 세상을 본다”는 선거 유세 구호를 외친 뒤 “사랑과 믿음이 함께 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총유권자 8천6백40명 중 4천7백6명이 투표, 54.46%의 투표율을(무효 108, 오차3)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단대는 약,



총학생회장 박정윤



부총학생회장 김정필

치대로 92.76%,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단대는 한의대로 33.28%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한편 제정된 한의대생 81명도 중앙선거위원회의 투표자격 부여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았다.

또한 제11대 총학생회장선거에는 단독 입후보했던 조영주(수학3), 강근정(지리93)후보가 선출되었다. 총유권자 3천2백15명 중 1천9백10명의 참가한 이번 선거는 이중 1천6백27명이 찬성해 85.18%의 득표율로 조-강 후보의 당선에 확정되었다. (최수정 기자)

사·교

“잃어버린 이름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오르고 있습니다. “할딱할딱”. 너무나 생생한 표현에 그 고개는 할딱고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멍멍하지 못한 이름. 아리랑고개도 아닙니다. 할딱고개도 아닙니다. 이름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의력이 이름없는 잃어버린 거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양캠퍼스 재학생, 대학원생, 동문, 교직원 등 경희구성원 모두
- 응모내용:
 - 체육관에서 산업대까지의 세칭 할딱고개 언덕길
 - 산업대에서 자연대까지의 길
- 응모기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 출품수: 각 부분 1~2편씩 총 2~4편
- 접수처: 대학주보사 편집실(서울 961-0095, 수원 280-2056)
- 당선작 발표: 12월 9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함
- 시상내용: 당선작 각 1편 300,000원
우수작 각 1편 100,000원
참가자에게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 참고사항: 모든 입상작은 대학주보사에 귀속됨

경희사진 공모전 입상작 12월9일자 발표

대/학/주/보/사

교시탐

아인슈타인 죽이기

▼아인슈타인은 학창 시절에 성적이 나빠서 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제발 학교를 그만두어 주었으면 좋겠다. 멍청한 네 수업 태도 때문에 반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는 수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하였다. 하지만 그는 성적 불량이라는 결점을 극복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인류 발전에 기여하였다.

▼우리 학교는 지난 21일 '97학년도 전과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이달 중순에는 전과 희망자 접수에 들어간다. 그간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다니던 학생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이념에 맞게 시행된 제도만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학과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전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학점 중심에서 적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김용운 기자)

경인지역대학 학점교류 확정

21학점 취득 가능·평균 B학점 넘어야

교무처장 협의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인지역 11개대학 학부학점 교류가 지난달 22일 경원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교무처장 협의회'에서 확정되었다. 학점교류는 학기중 또는 방

학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으로 하며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의, 한, 치, 약과 계열과 예, 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서만 가능하며 야간학부 학생은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서만 가능하다.

대상학생은 1학년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소속대학 재학기간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이고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제한된다.

학점교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부와 학과의 심의를 거친후 총장이 인정하면 교무처에서 학적부에 수록한다. 단, 교무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 및 필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교무학생은 교무대학에서 도서관 및 학업과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학점교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중에 있으며 학점교류는 빠른내년 1학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지안: GO KHU 32

하이텔: GO KHU 10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사회교육원 초등학생 특별강좌

1천12명참가...학내시설 견학

수원캠퍼스 사회교육원(부원장:이영준 교수)에서는 오는 6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봉사과 개방대학 지향에 힘써 실시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수원시 세곡초등학교 4, 5, 6학년생 1천12명이 참가하여 중앙도서관, 천문대, 원자로 등 학내 주요시설들을 견학하게 된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사회교육원 이영준(행정) 부원장은 “행사당일 우리 학생들이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초등학생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동들

해야한다”며 학교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개설될 강좌로는 총 9개 강좌로 △일반사회 교실-이영준(행정)교수 △화학교실-양중식(화학)교수 △자연과학 교실-구태희(환경)교수 △일반교실-김상준(우주)교수 △원예 교실-김용구(원예)교수 △입간 교실-이종락(임학)교수 △디자인 교실-임현학(산디)교수 △도에 교실-김승욱(도예)교수 △태권도 교실-전익기(태권도)교수 등이 있다.

전국대학연맹 태권도 대회 태권도부 금2 은3
우리학교 태권도부 이기철(태권도 2)군과 정명숙(태권도 3)양이 지난 26일부터 양일간 국기원에서 열린 '전국대학연맹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여 플라 이금과 해비금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고향언론인 한자리에’ 고향 언론인회(회장 신종성)는 지난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영식 학원장, 공영일 총장, 조정원 부총장 등 학교관계자와 임진출 국회의원, 현 언론사 재직중인 2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구영준 기자)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여 플라 이금과 해비금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태권도부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따내며 종합 4위에 올라 갑부상을 받기도 했다.

“세계의 중심에 서는 경희대학교”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닌 대학-경희대학교의 미래가 보입니다.

1999, 경희창학 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모든 경희인의 정성과 후원으로 완성됩니다.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
영원히 변치 않는 교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 대강당 완공
- 개교5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조성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기념사업 기금을 위한 범 경희인의 후원운동은 전개합니다.
- 21세기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 교육시설 확충(특수 교육공간 건설 및 문화공간 확충)
 -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 종합 학술 정보 체계 수립/도서관 장서 구입
 -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
 - 장학/각종 교시육성 후원기금

경희사랑(저금통)기금

- 목적: 학교 발전기금조성(예교실 및 저축성 함양)
- 참여대상: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 저금통배부안내
 - 1인1개 배부원칙, 12월 9일부터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배부(본관포함)
 - 동문일 경우 총동문회에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일 경우 개교50주년기념 사업회를 직접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총동문회: Tel. 744-8855/6, 3672-0616, Fax. 3672-4994)
 - 기타 소속기관장 및 단체장의 요청 공문에 의거 배부합니다.
- 세제감면: 출연자(기업체 및 각종재단 포함)가 기탁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
 -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8조의 2(상속재산 기금출연)
 - 소득세법 제66조의 3(기부금 특별공제)
 - 조세감면 규제법 제49조
 - (법인소득 손금 또는 개인사업소득 손금)

- 기탁방법
 - 경희사랑 저금통에 저축된 금액을 가까운 서울은행에 무통장 입금후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입금자 성명, 입금금액을 연락해 주십시오.

※입금계좌번호

서울은행: 17308-9505323
예금주: 경희대학교

- ◇계좌번호는 경희사랑 저금통 밑부분에 있습니다.
- 경희사랑 저금통을 가득 채우면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961-0931/2 Fax: 961-0906